



보도자료

2022. 1. 25. (화)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담당자 : 조형연 선임팀장 (010-3933-3949)

기본사회위원회, ‘선한 영향력’ 선거 캠페인 눈길

-헌혈, 거리인사, 환경정화, 지역화폐 활성화 까지 선한영향력 전파-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위해 선한영향력 전파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우원식·강남훈)가 추진하는 ‘선한 영향력’ 선거캠페인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을 ‘선한 영향력 전파’로 설정, 첫 캠페인으로 헌혈을 시작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에서 헌혈증이 답지하고 있다.

두 번째 캠페인으로 새해를 맞아 국민에게 인사를 드리는 새해맞이 거리인사를 진행했다. 1월 3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600여명이 참여, 지금까지 누적 7,0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민주당 선대위 전체로 확산, 매일 아침 수 천명이 거리 인사를 함께 하고 있다.

세 번째 캠페인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줍깅’이다. 광역위원회별로 환경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찾아 운동도 하고 쓰레기를 주웠다. 또 장보기 행사를 하며 전통시장이나 동네상가에서도 활발히 진행됐다. 이 캠페인 역시 3,0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네 번째 캠페인으로 지역화폐 활성화 캠페인 ‘전통시장 앞으로 지역화폐 제대로’를 진행했다.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을 찾아 장을

보며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사다. 지난 주말에 1,000여명이 참여, 위원회는 설 연휴 전까지 3,0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거리 인사와 줍깅, 지역화폐 활성화 캠페인을 결합해 지속적으로 시행,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선거 캠페인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우원식 위원장은 “기본사회위원회의 핵심 가치는 아주 기본적인 일부터 바르게 세우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선한 영향력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계속 발굴하고 선거기간 내내 지속해 국민들께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끝)

[첨부] 행사 사진



헌혈 캠페인



대구 거리인사



강원 줍깅 캠페인